

2019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 집 통보일자	2019. 10. 2.
재적위원	9명

1. 일시 : 2019. 10. 8.(화) 11:00 ~ 12:05

2. 장소 : 본관 2층 행정지원실

3. 참석위원 : 김중구, 김경순, 조성진, 김준연, 오정현 (5명)

4. 불참위원 : 이동기, 최원, 윤종호, 박병도 (4명)

※ 관련 참석자 : 김영묵(간사), 김영균(기획예산팀 직원), 정종훈(조선대병원 기획실장), 안귀복(조선대병원 기획팀장), 박승모(조선대병원 기획팀 직원), 원영석(치과병원 총무팀장), 문우영(치과병원 총무팀 직원)

5. 안건

가. 2019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나.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6. 회의 안건

－ 이동기 위원장이 오전 수업 일정으로 인해 김영묵 간사(조선대학교 기획예산팀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가. 2019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 정종훈 조선대병원 기획실장이 병원장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여 양해드리고 인사말과 함께 2019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편성 사유 및 규모에 대해 설명하다. 이어 개요는 자금수입은 본예산 2,448억 2천 4백만원보다 68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2,516억 3천 9백만원이고, 자금지출은 본예산 2,448억 7천 9백만원보다 70억 3백만원 증가한 2,518억 8천 2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자금은 59억 2천 3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자금 수입·지출 총계는 각각 2,578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 개요에 이어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 김경순 위원이 사전에 배부받은 병원 예산(안)을 보고 작성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의록에 명시해주라고 요청하다. 작성자료의 요약 내용은 대학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동결하는 상황에서 부속병원의 임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부속병원의 임금인상 안에 대해 부결시킬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 조성진 위원이 산학협력단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미 병원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단협이 체결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해 의결이나 부결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 대학에 진출할 수 있는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다

－ 정종훈 기획실장이 김경순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고, 개인

김종구 조성진 조성진 김준연 김경순

적인 의견으로는 병원은 교수만 있는게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된 간호사들도 많아 학교와는 다른 구조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다. 또한, 병원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임상교원 인건비는 올해 70%, 내년도에는 80%로 하기로 약속된 상황이지만 추후 병원 여건에 따라 전입금을 상향할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기획실장의 개인 의견이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하시면 병원장님하고 협의후에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하다

- 김경순 위원이 과거에는 대학이 재정적으로 상황이 좋았을 때 병원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현재 대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병원과 대학은 다른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다
- 정종훈 기획실장이 김경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병원에서도 대학으로 전출금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부지 매입비용 교비회계 전출금도 상향시켜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명예퇴직 인원이 몇 명인지와 그 지출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다
- 안귀복 기획팀장이 6명이고, 지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하다. 김경순 위원이 주신 자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추가적으로 덧붙여 설명하다
- 김경순 위원이 병원은 임금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임단협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 정종훈 기획실장이 김경순 위원의 의견을 이해했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이미 병원장과 노동조합과 임단협 체결이 된 상황에서 부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다
- 김종구 위원이 김경순 위원과 조성진 위원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해줬다고 하고, 부결 의결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다
- 김준연 학생 위원도 임단협에 대해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다
- 김영목 간사가 김경순 위원의 부결 의결을 제외한 참석 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나.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 원영석 조선대치과병원 총무팀장이 치과병원장이 외래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므로 양해드리고 인사말과 함께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편성 규모 및 사유에 대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14억 4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인상분 등 반영, 명예퇴직예산 신규 편성, 하반기 추진 예정 사업의 일부 조정을 위해 지출 예산 조정 등이라고 설명하다
- 개요에 이어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 조성진 위원이 치과대학 교사 증축과 관련하다 질의하다
- 문우영 직원이 치과대학 50% 교사 증축은 2007년에 증축하였고, 2005년도부터 전출하고 있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치과병원장님이 대학 전출의 어려움을 설명했

김종구 오정현

조성진

김준연

김경순

- 는데 이번 예산(안)은 대학으로 전출을 하는 것으로 돼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원영석 총무팀장이 치과병원도 병원처럼 노동조합이 있어 대학 경영을 하는 치과병원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임상교원 인건비 전출은 대학과 합의한 내용인데 이게 치과병원 노동조합 합의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다
 - 김경순 위원이 인건비 증가는 병원보다 치과병원이 향후 더 재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지출 항목도 보면 예산 항목 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안)을 어렵다고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
 - 문우영 위원이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대해 법인과 협의한 내용이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다
 - 원영석 총무팀장이 치과병원은 ^{2020학년도}임상교원 인건비 전출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겠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임상교원 인건비 및 치과대학 교사 증축 분담금을 대학 본부 및 혁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서 지키지 못하겠다고 대학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내주시라고 하다
 - 김영묵 간사가 치과병원으로부터 별도로 요청 자료를 받기로 하고 김경순 위원의 부결 의결을 제외한 참석 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고 2019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함

위 회의내용을 확인함.

2019. 10. 8.

위 원

김 종 구

김종구

위 원

김 경 순

김경순

위 원

조 성 진

조성진

위 원

김 준 연

김준연

위 원

오 정 현

오정현